

제 1 교시

언 어 이 해

성명		수험번호							
----	--	------	--	--	--	--	--	--	--

- 이 문제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클라이스트의 소설 『미하엘 콜하스』(1810)에서 16세기 브란덴부르크의 말 장수 콜하스는 한 때의 말을 이끌고 작센의 어느 성을 지나다 전에 없던 차단목을 마주한다. 관문지기의 요구에 따라 통행세를 지불하고 지나려 했으나 여행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주 귀족 벤첼에게 저지당하자 소유한 말 두 필을 보증 수단으로 남기는 조건으로 통행을 허락받는다. 여행증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된 그는 벤첼을 처벌할 것과 그간 혹사당해 야위어 버린 말을 회복시킬 것 등을 청원하며 고소장을 여러 차례 제출하지만, 벤첼의 친인척이 개입함으로써 법적 구제는 번번이 좌초된다. 법원은 그를 경미한 사안에 대한 불평꾼으로 처부한다. 능멸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적법한 시도들이 좌절되자 콜하스는 무리를 모아 불의에 대한 폭력적 단죄를 결행한다. 그 과정에서 신학자 루터와 격론을 벌이기도 한다. 법원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시했던 요구를 받아들인 시점에야 콜하스는 복수를 종결하기로 하고 사형대에 기꺼이 오른다.

콜하스가 방화와 살인을 일삼게 된 발단이 고작 말 두 필이었음은 독자에게 당혹스러운 설정이다. 권리 침해에 반발하며 저질러 온 폭력과 비교할 때 애초에 받았던 부당한 처우는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정당함에 대한 확신에 차 있다. 이를 두고 괴테는 작품에서 읽어낼 만한 것은 주인공의 ㉠ ‘지독한 편집증’뿐이라 평한 바 있다. 혹자는 그를 국가의 전복을 기도하는 폭도나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싸움꾼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예링이 이해한 콜하스는, 부패한 법원의 손아귀에서 ‘더럽혀진 검’을 빼앗아 저항한 후 응분의 처벌을 받은 자다. 예링이 볼 때 소를 제기하도록 이끄는 동인은 경험된 불의에 대한 도덕적 고통이며, 이해타산이 아니다. 내 소유물을 앗아간 자는 내 물건만이 아니라 내 인격도 공격한 셈이고, 그러한 모독을 참는 것은 한순간이나마 ㉡ 무법 상태를 승인하는 것이 된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그리하지 않을 의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함을 예링은 역설한다. ‘기울어진 저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콜하스는 자기 권리를 다시금 명예롭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미래의 침해로부터 동료 시민들을 구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작중 콜하스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계약이 실현된 상태이다. “법의 보호란 평화롭게 생업을 이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며, 그렇기에 자기 것을 모두 갖고 ㉢ 피신처로 찾아온 것”이라 말하는 콜하스는, 이번이 없었더라면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갔을 자다. 하지만 수차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법의 문 앞에 서서, 콜하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끔찍한 무질서’ 속의 자연 상태에

다다른 과국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스스로를 추방된 자로 여기는 콜하스를 루터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그곳으로부터 누군가가 추방당하는 경우는 없다”며 꾸짖지만, “㉣ 추방이란 바로 법의 보호가 거부되었음을 뜻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주권자에 대한 신민의 의무는 신민을 보호하는 권력에 대해서만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콜하스는 ‘천주의 권한에 의거하여’ 스스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포고문을 선포한다. 그는 자신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 오직 ㉤ 신에게만 복종하는 지배자로 규정한다.

소설 집필 당시, 유혈 혁명의 도래를 우려하던 클라이스트는 프로이센 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혁명적 추진력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하엘 콜하스』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정치적·법적 부조리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동시에 그것이 초래하고야 마는 폭력 상황을 자극적으로 그려내며 불의와 폐습을 혁파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신제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말 장수 콜하스의 이야기는 권리의 침해가 인간에게 그리고 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상하고 다시 사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프로이센 개혁 운동은 『미하엘 콜하스』의 발간 이전에 시작되었다.
- ② 추방에 대한 콜하스의 입장은 루터를 만난 후에도 변경되지 않았다.
- ③ 콜하스가 행한 일련의 폭력적 항거에 대해 괴테와 예링이 내린 평은 엇갈렸다.
- ④ 클라이스트는 폭력적 혁명에 반대했으나 혁명적 동력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 ⑤ 클라이스트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에 과거 인물을 주인공으로 배치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사소한 이해에 다툼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가리킨다.
- ② ㉡은 권리의 침해를 묵과하면 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임을 가리킨다.
- ③ ㉢은 사회계약을 통한 보호의 상태를 가리킨다.
- ④ ㉣은 신에게서 유래한 권리가 상실된 상황을 가리킨다.
- ⑤ ㉤은 군주에 대한 복종 의무가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3. 예링이 이해한 쿨하스가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은행원으로 평온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던 K는 어느 아침 불시에 체포된다. 죄명도 모르고 영장을 본 적도 없다. 그는 “위법한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관리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충고를 듣고 좌절한다. 법원은 부패하고 나태한 관료들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체이며, 무고한 이들을 잡아들여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다. K의 숙부는 소송에 연루되었음에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조카를 염려하지만, K는 “가만히 있을수록 결말이 더 좋아집니다”라고 대꾸한다.

- ① 나와 K 모두 마땅히 주어져야 할 법적 구제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나라면 가만히 있어서 형량이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K처럼 그것이 더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 ③ 만일 K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저항하기로 결심한다면, 나처럼 합법적 구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뒤에야 그리해야 해.
- ④ 나는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다는 비난에도 물려서지 않아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얻었지만, K는 가만히 있으라는 충고를 수용했군.
- ⑤ 내가 경험한 것 같은 불의를 이후 동료 시민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데 나의 싸움이 기여했듯이, K의 항변이 진심이라면 그도 동료 시민들을 위해 행동해야 해.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 제도는 대개 다양한 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인 경우가 많지만, 그 제도의 설계자는 제도를 통해 구현하려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 대부분 제도들은 상충관계에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구성되므로 가치를 최적화하려는 설계자의 ㉠ 고민은 증폭된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들 중 대표성과 책임성, 그리고 권력 분립과 정책 효과성 등은 어느 하나 포기하기 쉽지 않은 중요 가치들이다. 문제는 이들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원 내각제라 불리는 의회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되는 체제로서, 효과적 정책 추진에는 유리하지만 권력의 견제에는 취약하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국민이 따로 선출하여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체제로서, 상호 견제는 용이하지만 충돌하면 교착에 빠지기 쉽다. 설계자는 권력의 집중과 분산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추구한다.

의회 선거 제도도 권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수제는 단독 과반 의석 확보가 쉬워 책임 소재가 비교적 분명해진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집권 세력을 문책하기 쉽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의 정치적 선호가 의석 분포에 비례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반대로 비례제는 다양한 정치적 선호가 의회에 폭넓게 반영될 가능성은 커지지만, 연립정부가 되는 경우가 잦아 책임 소재가 분산되기 쉽다. 이런 제도들을 기계적으로 절충할 경우, 제도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 간의 상충은 불가피하다.

제도를 결합할 때 설계에 따라 ㉡ 상충관계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가치가 달성되는 만큼 다른 가치가 희생될 수도 있고, 가치들의 희생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으며, 가치들의 희생만 부각될 수도 있다. 혼합선거제도는 개별 지역구에서 다수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는 다수제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이 결정되는 비례제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제도적 시도이다.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독일의 선거 제도는 혼합형 선거 제도의 성공적 사례로 거론된다. 지역구 주민-대표자의 연대감 유지, 다수 정당의 책임성 등과 같은 다수제의 이점을 적당하게 살리면서도, 동시에 비례제의 대표성과 포괄성의 이점을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았다.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독립시키지 않고 연동시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을 일치시킨 점, 그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대등하게 유지한 점 등이 대체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반면, 제도 간 절충 때문에 오히려 각각 추구되던 가치들이 과도하게 희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독일식 선거 제도를 시도하더라도 주요 정당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 위성정당 등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우회할 경우, 비례성은 개선되지 않고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정부의 책임성도 약화된다.

상충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다수제와 비례제의 여러 세부 제도들이 다양하게 결합된 결과로 지적된다. 제도 개혁의 성과는 동일한 층위의 개별 제도 간의 결합보다는, 상호 보완성을 갖는, 상이한 수준의 제도 간 결합에서 그 가능성이 더 잘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와 의회제를 절충할 때 그 장단점은 같은 층위의 정치 제도 자체가 갖는 속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권력 구조와 하위 선거 제도의 조합에 따라 절충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의회제와 다수제의 조합이나, 대통령제와 비례제의 조합은 제도적 상호 보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제는 대체로 양당 체제와 친화력을 갖기 때문에 ‘순수’ 의회제와 조합하면 입법-

행정 영역은 물론 정당 체제에서도 권력 집중을 강화하여 견제가 특히 취약해질 수 있다. 비례제는 대체로 다당 체제와 친화력을 갖기 때문에 ‘순수’ 대통령제와 조합하면 입법-행정 영역은 물론 정당 체제에서도 권력 분산을 강화하여 책임성이 특히 취약해질 수 있다. ‘순수’ 의회제 국가들이 비례제를, ‘순수’ 대통령제 국가들이 다수제를 채택해 온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치 제도 설계에서 개별 제도와 그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좋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기계적으로 절충하면 단점만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 제도들이 어떤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결합되고, 그 결합이 상충관계에 있는 제도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지 아니면 ㉔ 증폭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결합에 적응하는 행위자들의 반응도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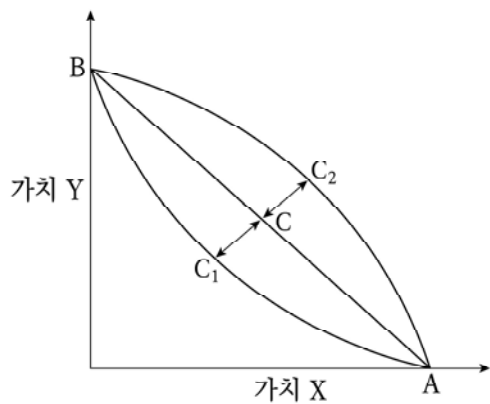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대통령제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력 집중을 지향한다.
- ② 의회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내각과 의회 간에 갈등이 나타나기 쉽다.
- ③ 다수제에서는 양당 체제가 나타나기 쉬운 만큼 선거로 집권 세력을 문책하기도 쉽다.
- ④ 비례제가 대통령제와 결합하면 정당 간에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여 권력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 ⑤ 의회제는 정당의 책임 소재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선거 제도와 결합할 때 권력 균형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아래 그림은 두 제도가 각각 추구하는 가치 X와 가치 Y의 함이 최대가 되는 제도의 결합을 찾는 시도를 표현한 것이다. C, C₁, C₂는 각 선 위에 있는 점으로서 제도 간의 결합으로 기대되는 가치의 실현 정도를 나타낸다. 점 A와 점 B는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 ① ㉑은 C₂보다는 C₁로 이동하려는 모색이다.
- ② ㉒은 A, C, B를 잇는 선 위의 이동이다.
- ③ ㉓은 두 가치의 조합으로서 C₂를 기대하는 시도이다.
- ④ ㉔은 C₂로 움직이려다가 C에 머문 경우이다.
- ⑤ ㉕은 A 혹은 B에서 C₂로 이동하는 경향이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추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순수’ 대통령제와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X국은 최근 각 정당에서 정치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아래와 같은 정당 A, B, C, D, E의 당론이 채택되었을 때 예상되는 권력 집중의 정도는 각각 다르다. 제도들이 권력 집중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절댓값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A당: ‘순수’ 대통령제와 비례제를 유지한다.

B당: ‘순수’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다수제로 전환한다.

C당: ‘순수’ 의회제로 전환하되, 비례제를 유지한다.

D당: ‘순수’ 의회제와 다수제로 전환한다.

E당: ‘순수’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의원 정수의 절반은 다수제로, 나머지 절반은 비례제로 선출한다.

- ① A당 당론의 채택 결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D당 당론이 채택될 경우겠군.
- ② 당론 간 비교에서 권력의 집중도가 가장 유사한 경우는 B당과 C당의 것이겠군.
- ③ 효과적 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당은 D당이겠군.
- ④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가장 어려운 경우는 E당 당론이 채택될 경우겠군.
- ⑤ E당 당론의 채택 결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D당 당론이 채택될 경우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은 케냐를 식민지화하는 초기부터 통치 법령을 제정하고 철도를 부설하면서 부족들의 토지를 침탈하여 영국 정착민들에게 이양해 갔다. 이러한 정책은 토착민들을 낯선 보호 구역으로 몰거나 영국인들의 저임금 노동자로 밀어 넣었다. 이후 보호 구역의 인구는 과밀해졌고, 토착민들의 생활 수준은 줄곧 하락했으며, 노동 임금 또한 낮게 통제되었다. 보호 구역 밖으로 나가려면 신분증이 담긴 상자인 키파테를 목에 걸어야만 했는데 토착민들은 자괴감에서 이를 염소 목의 방울이라 불렀다. 1920년대부터는 가장 큰 부족인 키쿠유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토지와 자유를 회복해 보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상은 탈식민의 열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 무렵 케냐에서는 영국 정착민들의 정치적·경제적 세력이 여전히 공고했기 때문에, 케냐 식민 당국은 토착민의 온건한 주장마저 무시했다.

1950년대에 들어서 케냐의 저항 운동은 식민 당국의 효과적인 파괴 공작으로 사그라지는 듯이 보였으나 그것이 시작이었다. 저항 운동은 1952년에 반식민 무장 투쟁인 마우마우 봉기로 발전한다. 키쿠유족 저항 조직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항쟁은, 약해진 열강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세계사적 투쟁의 경향과 궤를 같이한다. 키쿠유족 지역들과 수도 나이로비의 불만 세력은 반식민 운동으로 결속하며 무력 항쟁으로 나아갔다. 비상시국이 선포되고, 봉기는 격화되었으며, 무자비한 진압이 빈발했다. 사망자만 수만 명에 이르렀다. 영국 군경뿐 아니라 친영파 부족민까지 항쟁의 대상이었기에 마우마우 봉기는 독립 전쟁이면서 내전의 성격도 보였다. 실제로 영국 쪽 사상자 중에는 백인보다 아프리카인이 훨씬 많았다. 영국은 인근 국가의 병력까지 동원해서야 저항을 진압할 수 있었고, 1954년에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마우마우는 갑납을녀의 운동이었다. 참여자들은 무장 게릴라인 ‘숲속의 전사’들이 되거나 병참 지원 비전투원인 ‘수동적 날개’로서 힘을 보탰다. 후자에는 여성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었다. 영국은 진압을 마친 뒤에도 1960년까지 ㉠ 비상시국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 동조 혐의가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용소를 케냐 전역에 150개소 남짓 설치하여 15만 명 넘게 감금하였고, 이들을 전쟁포로로 취급하여 노역에 동원하였다. 이는 케냐 식민 당국이 영국도 가입한 1953년 유럽인권협약을 의식한 것이다. 협약 제5조는 재판 없는 구금을 금지하며, 제15조는 공공질서가 극단적으로 위협받는 비상시나 전시에만 제5조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한다. 수감자들에게는 모욕, 폭력, 고문이 흔한 일이었고, 학살도 있었다. 1948년 유엔 고문금지 협약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고문은 금지된다. 1949년 제네바조약상 전쟁포로라 해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으로 영국이 나치 수용소를 운영한다는 비판은 받을 만했다.

1963년 말 독립한 케냐는 독립운동가인 케냐타가 국가수반이 되어 여러 부족을 차별 없이 정부에 등용하여 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과거사에 대한 진상 조사도 착수하였는데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이후 들어선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실상 진행이 중단되었다. 2002년 민주화 이후에야 과거사 배상 문제가 제대로 제기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신고가 줄을 이었지만, 2007년 민주화 세력이 분열하면서 이 사안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2009년 무투아 등 고령의 피해자 5명은 개인 자격으로 영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를 영국의 법원에 제기하였다. 영국은 상호 협의 아래 임시

정부를 거쳐 통치권을 이양한 만큼 과거사에 대한 책임은 현 케냐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내내 견지한다. 수많은 증거가 드러나고 국제적 비난까지 겹치자, 2013년 영국 외무장관 헤이그는 고문 생존자 5,228명에 한하여는 배상을 약속하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지금도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수동적 날개는 항쟁을 위한 군수 지원보다는 정치적 역량 제고에 힘썼다.
- ② 영국의 국력이 약해진 가운데 억압 정책의 지속은 결국 무력 항쟁을 불렀다.
- ③ 키쿠유족은 나이로비 저항 세력에 대한 불만으로 투쟁을 선택하게 되었다.
- ④ 토지를 되찾으려는 정치적 시도는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결실을 보았다.
- ⑤ 토착민들은 일종의 통행증이라 할 키파테를 신분증이 되는 장신구로 여겼다.

8.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무장관 헤이그는 수용소를 설치한 데 대한 배상 책임을 시인했다.
- ② 영국 정부는 유엔 고문금지협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 ③ 케냐 식민 당국의 군사력은 독립의 결의에 찬 봉기 세력을 압도하지 못했다.
- ④ 무투아 등이 소를 제기한 것은 케냐 정부의 해결 노력이 미흡했던 탓이 있다.
- ⑤ 반식민 운동에서 영국 측에 섰던 부족은 케냐 독립 직후에도 응징되지 않았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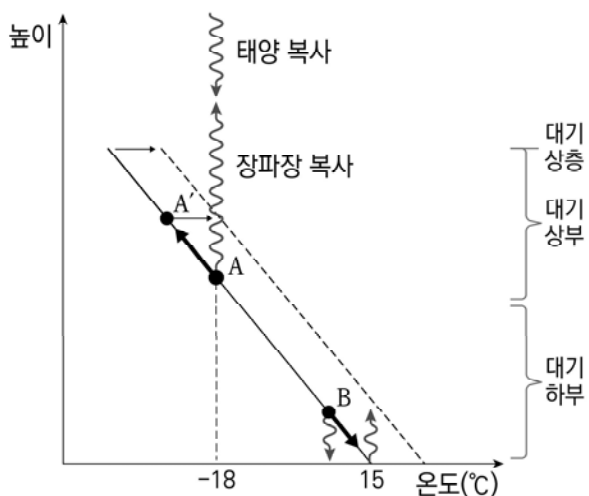
- ① 민간인을 체포하여 노동력으로도 쓰는 합법적 기반을 조성하려 한 것이다.
- ② 숲속의 전사들을 그 지원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 ③ 인권 유린을 일삼은 수용소의 설치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가 되었다.
- ④ 재판의 형식을 갖추어 마우마우 관련 혐의자들을 수감하는 데 활용되었다.
- ⑤ 탈식민 무장 투쟁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데 당황한 영국의 상황을 반영한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기체에 의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과학적 검증을 통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원인이 인간 활동이 아니라 태양활동의 증가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지구는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열되고, 가열된 지구는 다시 그 온도에 대응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가 같을 때 지구는 열평형을 이루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열평형 온도도 변하지 않으므로, 언뜻 생각하기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과연 태양활동의 증가가 없으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열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하며, 그 값으로부터 물체의 온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지구 대기 상층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인공 위성으로 측정한 값으로부터 지구의 ‘유효 방출 온도’, 즉 지표-대류권 계를 균일한 온도를 갖는 물체로 가정한 경우의 온도를 계산하면 약 -18°C 이다. 지표의 평균 온도는 약 15°C 이므로, 대기의 온실효과 덕분에 약 33°C 더 따뜻해진 것이다.

지표는 장파장 복사를 위쪽으로 방출한다. 이 상향 복사는 대기를 통과하면서 온실기체에 의해 흡수되어 감소하지만, 동시에 이들 기체로부터 방출된 복사도 인해 증가하기도 한다. 만약 대기의 온도가 고도와 무관하게 균일하다면 두 효과는 서로 상쇄되어 상향 복사량은 일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표에서 방출된 상향 복사 중 대기에 의해 흡수되는 복사량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기에서 방출되는 상향 복사량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대기는 지표에서 방출된 장파장 복사의 상당 부분을 대기 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가둬 두어, 지표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대류권에서 고도와 대기 온도

이제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할 때 지표와 대류권 온도가 같이 상승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대기 중의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대기의 장파장 복사 흡수율이 증가하여 지표나 대기 하부에서 방출된 복사가 대기 상층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대기 상부에서 방출된 상향 복사는 덜 흡수된 채로 대기 상층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통과해야 할 대기의 두께가 더 얇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 상층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장파장 복사의 평균 방출 위치, 즉 ‘유효 방출 중심’의 높이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의 유효 방출 중심은 A에서 A'으로 이동한다.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감소

하므로, 유효 방출 중심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지구의 유효 방출 온도가 낮아지고, 대기 상층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량도 줄어든다.

온실기체 농도의 변화는 대기 상층에서 방출되는 상향 복사뿐만 아니라 지표로 도달하는 하향 복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대기의 장파장 복사 흡수가 증가하여 대기 상부에서 방출된 복사가 지표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하향 복사의 유효 방출 중심(B)이 더 낮아진다.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으므로, 하향 복사의 방출 중심이 낮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지표에 도달하는 하향 복사량이 증가하게 된다. 지표는 흡수한 복사 에너지를 다시 대기로 방출하며, 이 과정은 대류, 장파장 복사, 대기의 대규모 순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표뿐만 아니라 대류권 전체에서도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대류권 온도는 지구가 흡수한 열과 방출하는 열 출입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그림>에서 대류권 온도 곡선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여 대기 상층에서 방출되는 복사의 유효 방출 온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대기 상층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지표-대류권 계의 전체 온도는 증가한다. 이것이 태양활동의 증가 없이도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이다.

10.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지구 온난화는 태양활동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 ② 온실효과의 증거는 인공위성 관측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③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유효 방출 온도는 상승한다.
- ④ 지표에서 방출된 복사량은 대기 상층에서 우주로 방출된 복사량과 같다.
- 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대기 상층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량이 늘어난다.

11. 밑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대기의 온도가 균일하다면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 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변화해도 지구의 유효 방출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 ㄷ.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지구의 유효 방출 온도와 지표 온도의 차가 커진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표는 가상의 두 시대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표 온도, 온실기체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외의 조건은 동일하다.		
	시대 X	시대 Y
태양 복사 에너지(W/m ²)	240	245
지표 온도(℃)	15	2
온실기체 농도(ppm)	400	150

- ① 대기 상층의 온도는 X가 Y보다 높다.
- ② 지구의 유효 방출 중심 높이는 X가 Y보다 낮다.
- ③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X가 Y보다 작다.
- ④ 지표에서 방출되는 상향 복사 에너지는 X가 Y보다 크다.
- ⑤ 대기 하부에서 방출되는 하향 복사 에너지는 X가 Y보다 크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하네. 많은 사람은 첫째, 불의를 당하는 것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둘째, 불의를 저질렀을 때는 벌을 받는 것이 벌을 피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두 주장에 모두 반대하네.

첫 번째 문제인 불의를 당하는 것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지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무언가를 ‘훌륭하다’거나 ‘부끄럽다’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에 의거하는지 생각해 보세. 훌륭함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또는 어떤 목적에 쓸모가 있어 이로움, 즉 좋음을 주거나 말일세. 둘 다이면 말할 것도 없고. 훌륭함의 반대인 부끄러움의 기준도 마찬가지겠지? 어떤 것이 부끄러운 것은 그것이 고통을 주거나 혹은 해로움, 즉 나쁨을 주거나.

많은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 더 부끄럽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자가 후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네. 여기에 방금 세운 기준을 적용해 보세.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더 부끄럽다면, 그것은 더 고통스럽거나 더 나쁘기 때문이어야 하네. 그런데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당하는 자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지?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일세. 즉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당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첫째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세. 많은 사람은 정의로운 것은 훌륭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의를 저질렀을 경우 벌을 받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은 부인하네. 이에 대해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가하는 행위와 겪는 행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 ‘가하는 자’와 ‘겪는 자’가 있는 행위의 경우, 겪는 쪽은 가하는 쪽이 가하는 것을 그대로 겪지 않는가? 예를 들어 A가 B를 때리는 경우, A가 심하게 때리거나 빨리 때리면 B는 심하게 맞거나 빨리 맞을 수밖에 없겠지? 이처럼 겪는 자는 가하는 자의 행위가 지니는 성질을 그대로 전달받아 겪는 것이지?

이제 벌을 받는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해보세. 벌을 받는 것은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겪는 것이고, 이 경우 가하는 자는 벌하는 자이지? 그리고 앞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자가 정의롭게 벌하기만 한다면 벌받는 자는 정의로운 것을 겪는 것이지? 게다가 많은 사람이 인정하듯 정의로운 것은 훌륭한 것이니, 정의로운 것을 겪는 것은 훌륭한 것을 겪는 것일세. 그런데 훌륭한 것은 즐겁거나 이롭거나인데 벌을 받는 것은 즐겁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의롭게 벌받는 것은 분명 자신에게 이로운 것, 즉 좋은 것을 겪는 것일 수밖에 없네. 그 이로움이란 무엇인가? 바로 영혼이 ‘불의’라는 가장 나쁜 상태에서 벗어나 더 훌륭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네.

인간은 삶에서 세 가지 나쁜 것을 마주하네. 재산 측면에서는 가난, 몸 측면에서는 질병, 그리고 영혼 측면에서는 불의가 그것이지. 이 셋 중 무엇이 가장 부끄러운가? 가난이나 질병은 나쁘지만 부끄럽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때로 우리는 내 탓이 아닌 가난이나 질병을 겪기도 하니 말일세.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나쁜 것들 중 불의는 가장 부끄러운 것이며, 따라서 가장 나쁜 것이네. 질병이 몸에 해를 끼치듯 불의는 영혼에 해를 끼치는데, 재산보다 몸이 더 중요하듯 몸보다 영혼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며, 이들 사이의 간극은 넘어서 수 없기 때문이네. 그런데 가난은 돈 버는 기술로, 질병은 의술로 치료

하네. 그렇다면 영혼의 나쁨인 불의는 무엇으로 치료하는가? 바로 사법술일세.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쓴 약을 먹고 수술을 견디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이롭듯, 불의를 저지른 자는 법관에게 가서 처벌을 받음으로써 영혼 안의 나쁜 것을 제거해야 하네.

결론적으로 행복의 서열은 다음과 같네. 영혼에 애초부터 불의가 깃들지 않은 자가 가장 행복하고, 불의를 저질렀으나 훈계와 벌을 통해 대가를 치르고 그 나쁜 것에서 벗어난 자가 그 다음으로 행복하고, 영혼 안에 불의라는 가장 큰 나쁜 것을 품은 채로 벌이라는 치료 없이 살아가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이네.

13. 윗글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불의 중에는 부끄러운 불의와 부끄럽지 않은 불의가 있다.
- ② 어떤 훌륭한 것이 이로움을 준다면 그것은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 ③ 불의를 저지른 자가 정당한 벌을 받는 것은 저지른 자 자신에게 좋다.
- ④ 재산 측면에서의 좋음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몸 측면에서의 나쁨을 상쇄할 수 있다.
- ⑤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당하는 것보다 저지른 당사자에게 더 나쁜 이유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면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14.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의는 훌륭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 ②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통치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다.
- ③ 사적인 감정으로 고발되었다면 형벌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더라도 벌을 받은 사람이 좋은 일을 겪은 것은 아니다.
- ④ 많은 사람이 행복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이로움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즐거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 ⑤ 불의를 저지른 경우 벌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벌이 정의로운 벌이라는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A: 중병에 걸렸으나 수술의 고통이 두려워 치료를 거부하고 병색이 깊어 가는 갑부
- B: 남의 재산을 훔치는 불의를 저질렀으나 자수하여 징역형을 치르고 나온 사람
- C: 극도로 가난하지만 건강한 삶을 살면서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시민

- ① A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벌을 피하는 불의한 자의 행동과 유사되며,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나쁨 속에 머무는 결과를 초래한다.
- ② B가 자수한 행위는 형벌의 고통을 가져왔지만 영혼의 나쁨을 제거한 훌륭한 선택이었다.
- ③ C의 삶은 극도의 가난에서 오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례들 중 가장 행복한 삶이라 할 만하다.
- ④ A가 중병에 걸린 사실은 자신의 탓이 아닐 수 있지만, B의 절도 행위는 자신의 탓이 아닐 수 없다.
- ⑤ B는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형벌을 스스로에게 야기했으므로 C보다 덜 행복하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자신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려는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타인에게 무관심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정성이나 자선, 신뢰, 보복과 같이 타인을 고려한 행동들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존재한다.

타인을 고려한 행동이 경제학의 설명과 충돌한다고 보는 견해는 이런 행동이 보편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흔히 실험에 의존하는데, 다음 게임이 그 한 예이다. 제안자와 응답자 사이에 나눌 공동 자금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를 제안자가 결정한 다음 응답자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응답자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제안자와 응답자는 제안된 금액을 받지만, 응답자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경기자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해 보자. 경기자가 순서대로 선택하는 순차적 게임의 상황이므로, 마지막 선택자의 결정부터 먼저 고려한 다음 선택의 역순으로 경기자의 결정을 추론하는 역방향 추론을 사용한다. 만약 두 경기자가 타인이 얼마를 갖든 과념치 않고 자신의 몫에만 신경 쓴다면, 0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어떤 제안도 응답자가 받아들일 것이므로 제안자는 가장 적은 금액을 제안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실험 결과, 대부분의 제안자는 주어진 자금의 25~50%를 응답자에게 주겠다고 제안하고 5% 이하를 제안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응답자는 자주 20%보다 낮은 금액의 제안을 거절한다. 이런 결과에 기초하여 많은 사람이 불공정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선택을 한다고 보아 경제학의 합리성 가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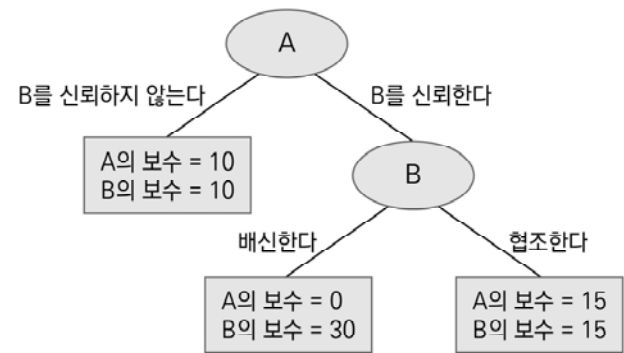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행동이 경제학의 본질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타인을 고려한 행동도 합리성 가정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애초에 경제학은 사람들이 무엇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매길지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 사람이 그 대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예측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공동 자금의 크기를 달리하면서 위의 게임을 여러 차례 실험한 결과, 그 크기가 클수록 제안자가 제안하는 몫의 비율이 더 낮았다. 불공정한 제안이라도 액수가 크면 응답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자가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선택도 그러했다. 공정성에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의 선택도 경제학의 예측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자선이나 보복도 합리적으로 선택된다고 설명한다. 보통의 재화처럼 자선 기부도 그 선택이 소득과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가격과는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소득세율이 바뀔 때 기부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다. 과세에서 기부 금액이 소득 공제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율은 기부 선택자의 세후 소득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기부가 소득 공제되는 경우, 가령 소득세율이 70%라면 100만 원을 기부하기 위해 치르는 가격은 30만 원이고 28%라면 72만 원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율은 기부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기부 행위의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1980년대 미국 조세 개혁을 분석한 한 연구는, 소득세율이 70%에서 28%로 낮아져 모든 계층 가운데 가장 큰 폭의 ㉠ 소득세율 인하를 경험한 최고 소득 계층에서 소득 공제되는 자선 기부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아 위의 예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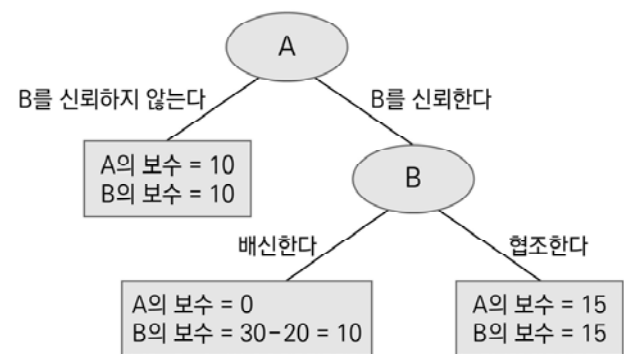
타당함을 보였다.

끝으로 보복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는 신뢰 게임에 대해 알아보자. 계속 만날 일이 없는 2명의 경기자 A와 B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A가 먼저 선택한다고 하자. A가 B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두 경기자는 모두 10의 보수를 얻는다. 만약 A가 B를 신뢰한다면, B는 배신이나 협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B가 배신한다면 A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B는 30의 보수를 얻는다. B가 협조한다면 B와 A 모두 15를 얻는다. <그림 1>에서 역방향 추론을 이용하면, 마지막 선택자인 B는 배신을 선택할 것이고 이를 예상한 A는 B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두 경기자 모두가 더 좋아지는 기회를 잃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B가 도덕규범을 내면화하여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 수 있다. 이 경우, B가 배신할 때 20의 벌금과 맞먹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그림 2>와 같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B의 배신에 대해 A가 보복할 기회가 존재하는 상황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그림 1>



<그림 2>

16.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 ①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신뢰할지를 말해 주는 학문이 아니다.
- ②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선을 통해 얼마나 행복을 느낄지를 말해 주는 학문이 아니다.
- ③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정성을 추구할 것임을 말해 주는 학문이다.
- ④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선택할 때 타인의 처지나 행동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 주는 학문이다.
- ⑤ 경제학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배신에 대해 보복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 주는 학문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의 조건에서 추론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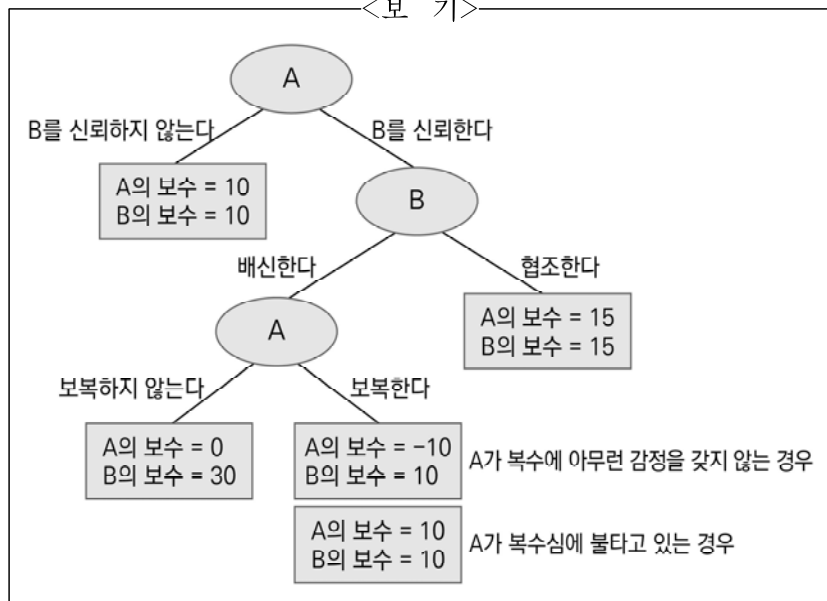
<보 기>

- ㄱ. 소득 공제되지 않는 자선 기부의 경우, 세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로 인해 납세자의 기부는 증가했겠군.
 ㄴ. 소득 공제되는 자선 기부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세후 소득 증가로 인한 효과를 압도하여 최고 소득 계층의 기부는 감소했겠군.
 ㄷ. 소득 공제되지 않다가 세율 인하와 함께 이루어진 세제 변화로 인해 소득 공제되도록 변경된 자선 기부의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효과와 세후 소득 증가로 인한 효과가 합쳐져 납세자의 기부는 증가했겠군.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8. <보기>가 ㉡의 상황을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① A가 복수에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는 경우, B는 배신을 선택하겠군.
 ② A가 복수에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는 경우, 결국 A는 B를 신뢰하지 않겠군.
 ③ A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경우, A가 B를 신뢰하든 않든 두 사람이 받는 보수에는 변화가 없군.
 ④ A가 보복하는 경우, A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면 복수심의 충족으로 20에 해당하는 보수가 증가하는군.
 ⑤ A에게 B의 배신에 대해 보복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A와 B 모두가 더 좋아지는 결과로 바뀌는 것은 아니군.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계를 상상해 보라. 이 ‘경험 기계’에 연결되기만 하면 두뇌를 자극하여,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는 성취감, 노벨상을 받는 기쁨,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과 연애했을 수 있는 짜릿함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연결된 동안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없다. 이 기계와 연결되어 원하는 모든 쾌락을 경험하는 삶을 선택하겠는가?

철학자 노직은 우리의 행복, 즉 삶의 좋고 나쁨이 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에 따라 결정된다는 쾌락주의를 거부하기 위해 이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만약 쾌락주의의 주장대로 쾌락이 우리가 추구할 유일한 가치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만끽하게 하는 경험 기계에 연결되기를 원할 텐데, 노직은 사람들이 연결을 거부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단순히 쾌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특정한 주체가 주변 사람과 함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험 기계 사고 실험은 한때 ㉠ 사람들이 현실을 선택한다는 사실 판단으로부터 ㉡ 현실이 쾌락보다 가치 있다는 규범 판단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사실 판단에서 규범 판단은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이런 이해는 잘못이다. 경험 기계 사고 실험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사람들이 경험 기계 대신에 현실을 선택하리라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은 현실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는 규범 판단이라는 것이다. 현실이 본래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가설은 경험 기계에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현실을 더 선호하는 선택에 포함된 비합리적인 요소 및 편향을 지적함으로써 이 최선의 설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먼저 ‘쾌락주의적 해석’은 경험 기계 속의 쾌락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쾌락적 동기에 따른 것임을 나타낸다고 본다. 경험 기계에 연결된 삶을 거부하는 선택의 궁극적 이유는 가짜 쾌락을 경험하는 것보다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기 때문일 수 있다.

경험 기계 사고 실험을 교란하는 또 다른 왜곡 요인으로 ‘상상의 실패’가 지적된다. 경험 기계는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고통 없이 원하는 쾌락을 경험하게 해 준다고 가정하는데, 실험의 참가자들은 이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 경험 기계에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경험 기계에는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는데도 말이다.

경험 기계에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인간이 가진 ‘현상 유지 편향’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도 주목받는다. 경험 기계 사고 실험의 참가자는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현실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가상 공간으로 이동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을 선택하려는 반응은 쾌락과 현실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가치 평가의 결과라기보다는 설령 쾌락이 보장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래의 사고 실험을 약간 변형한 ‘역전된 경험 기계’를 상상해 보자. 만약 당신이 이미 경험 기계와 연결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기계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경험 기계와의 연결을 끊고 현실로 돌아가길 원하는가? 실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자 많은 사람은 만약 지금까지의 삶이 경험 기계가 만들어 낸 것이라도 기계 속에 계속 머물렀다는 선택을 내렸다. 요컨대, 경험 기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쾌락과는 무관하게 현재 상태에 집착하는 심리 때문일 수도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경험 기계는 저렴한 쾌락만을 제공해 준다.
- ② 주변 사람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쾌락이 아니다.
- ③ 노직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④ 경험 기계 안에서도 경험 기계 사고 실험이 가능하다.
- ⑤ 쾌락주의는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주장한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들이 사고 실험에 포함된 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의 한 가지 원인이다.
- ② ‘현상 유지 편향’ 설명은 ㉠과 관련하여 인간이 현재의 상태에 대한 비합리적 선호로써 쾌락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본다.
- ③ 참가자의 상상력마저 통제하지 못하는 한 ㉡은 신뢰할 수 없다.
- ④ ‘쾌락주의적 해석’은 ㉠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 틀렸음을 주장한다.
- ⑤ ‘최선의 설명’ 이해는 ㉡의 참이 ㉠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이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역전된 경험 기계’의 사고 실험에, 참가자가 가상 기계가 아닌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 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물었다.

- 긍정적 시나리오: 휴양지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백만장자이다.
- 부정적 시나리오: 철저히 감시당하는 감옥의 죄수이다.
- 중립적 시나리오: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른다.

중립적 시나리오와 긍정적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약 50%의 사람들이 기계와 연결을 유지하는 선택을 내렸다.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약 90%의 사람들이 기계와 계속 연결되기를 선택하였다.

- ① 부정적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은 쾌락주의에 유리한 경험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 ② 긍정적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은 쾌락이 인간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 ③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이 쾌락보다는 현실을 선호한다는 노직의 확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 ④ 중립적 시나리오와 긍정적 시나리오의 반응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사람들의 현상 유지 편향을 보여 준다.
- ⑤ 긍정적 시나리오에 비해 부정적 시나리오에서 기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데서, 고통 회피가 쾌락 추구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내용] 한창 개발 중인 서울 변두리 'S동'의 학교로 강 건너편에 사는 음성 한센인의 자녀들이 편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문둥이의 아이들이 강 건너 이편으로 온 것이다. 문둥이의 아이들이. 문둥이의 아이들이. 한 번도 우리들은 문둥이를 본 일이 없다. 우리가 가끔 바지를 내리고 무책임한 오줌을 깔기던 강, 가까운 화력발전소의 증유가 뚝뚝 떠서 흐르는 강, 돌팔매질이나 자꾸 무의미하게 던져 대던 강, 도대체 흘러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고여 자꾸 썩기만 하는 것처럼 짙은 암갈색의 강 저편에서 문둥이의 새끼들이 강 건너 이편으로 건너온다.

...(중략)... 보이지 않는 이물질에 의한 이물감이 온 동리에 충만되고 있었다. 인심 좋은 개들도 그들을 보면 짖었다. 단순히 생각하는 이미지, 즉 문둥이들은 날카로운 면도칼을 손가락 사이에 집고 있다가 가슴을 석류알처럼 찌른다는 것과, 눈에 눈썹이 없다는 사실이 그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 이후에도, 그들은 좀 더 주의 깊게 과연 이 새로운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이 우리와 달라 격리된 존재인가를 관찰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다가는 후딱후딱 놀라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이 조그마한 밀집을 이루면서 펄펄 물에 머리를 처박고 담수어 같은 움직임을 할 때에도 동네 아이들은 둥그렇게 서서 그 나환자촌 아이들을 관찰하였으며, 몇몇 용감한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면서 계집아이의 ㉠ 살갗을 스쳐 보기도 하고, 그들의 손가락 사이를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였다. 간혹 못된 애들은 갑자기 침을 뱉고 물방개처럼 도망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키 크고 가슴 넓은 한 소년이 이를 악물고 ㉡ 돌을 들어 발작적으로 던지곤 했다. ...(중략)... 그 즈음이었다. 그들이 하학길에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세수를 하려 했을 때였다. 그들 주위에 서서 오랫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 따가운 초가을의 햇살 속에서 흔들거리는 이빨이 빠지려는 짜릿한 아픔과 또 한편의 새로운 쾌감 속에서 뜨거운 침을 삼키던 소년 중의 하나가 갑자기 거들먹거리며 그들 곁으로 다가갔고, 막 두레박을 들어 올리는 소년의 손에서 두레박을 빼앗았던 것이다. 안 된다. 소년은 두레박 끈을 잡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문둥이촌 아이들 중 몸이 큰 소년이 덤벼들었다. 뭐라구 안 된다구. 그래 어쩌서 안 된다는 거냐. 너희들은..... 소년은 가슴에 힘을 주며 단정을 내렸다. 문둥이다. 문둥이는 전염된다. 뭐라구. 아이는 이를 악물었다. 문둥이라구. 너희들이 우리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 온 동네에 문둥병이 전염된다. 소년의 말이 아이들에게 무슨 뜻인가 전달되기엔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소년은, 아니 두 무리는 필사적으로 상대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소년은 아이가 어리둥절해 있는 것을 보자 말을 덧붙였다. 너희 몸에선 냄새가 난다. 그래 문둥이 냄새 말이다. 뒤의 다른 소년이 동조를 했다. 그 순간 딱정벌레처럼 문둥이촌 소년이 덤벼들었다. 소년의 굵고 질긴 팔은 그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소년을 단숨에 때려눕혔다. 소년의 코에서 코피가 튀었다. 아이는 소년의 얼굴을 이빨로 물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겁에 질린 모습으로 보고 있던 동네 소년들을 쳐다보고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덤빌 녀석 있으면 또 나와라. 너희들 핏속에 모두 문둥이 피를 옮겨 놓고 말 테다. 이빨로 물어뜯어서 말이다.

그날 저녁 문둥이촌 소년에게 이마를 물린 소년은 두려움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소년은 몇 번이고 얼굴을 비누로 씻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으나 아이가 이빨로 사납게 문 이마의 자국은 더욱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소년은 자기가 졌다는 분노보다는 핏속으로 무언가 산기슭에서 옷과 같은 독소가 뛰어들어 간 듯한 공포심에 와들와들 떨어 대고 있었다. 언젠가 마을에서 추하고 충혈된 눈을 가진 개가 미친 듯이 뛰어나온 일이 있었다. 미친개다, 하고 어른들이 문을 잠그면서 말을 했다. 물리면 죽는다. 나가선 안 된다. 소년은 ㉣ 싸리울타리로 그 개가 비틀거리며, 그러다가는 사납게 짖으며 거리를 달리다가는, 서서 공허하게 짖는 것을 보고 있었다. 개는 가로수를 경충이면서 물어뜯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산 사람의 그것처럼 빛이 나면서 이쪽을 노려보기도 했다. 그 순간이었다. 파출소에서 나온 순경이 거리 끝에 서서 개를 향해서 총을 들었다. 개는 무표정하게 자기를 겨누고 있는 순경을, 그리고 총구를 쳐다보았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거리를 훑어 오르고 있었다. 이윽고 한 방의 총성이 울리자, 개는 선 자리에서 거꾸러졌다. 그러자 온 집의 문이 열리고 미친 듯이 동네 애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아아, 사랑스런 개, 미친개는 배를 드러내고 죽어 있었다. 아직도 문득문득 다리에 경련을 해가면서, 그 기억을 상기해 낸 소년은 더욱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황혼이 깃드는 거리로 뛰쳐나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의 아버지는 유리창 너머로 그의 아들이 눈물이 가득해서 혈떡이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언가 수상스런 낌새를 눈치챘다. 그것은 비가 오기 전 ㉤ 유난스레 날갯짓하는 어린 새들의 침착지 못한 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

- 최인호, 『미개인』 -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강에 돌팔매질하는 이유는 '나환자촌'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 ② 개에 대한 소년의 강렬한 기억은 전염의 공포를 증폭하였다.
- ③ 주유소 집 소년은 몸싸움 중에 코피가 나고 이마에 상처가 났다.
- ④ 소년은 '우리 우물'의 오염을 구실로 두레박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 ⑤ 손가락 사이를 유심히 보는 아이는 혹시 면도칼이 있는지 살피려는 것이다.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둥이' 판명과 관련해 호기심과 허세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은 마을 아이들의 짓궂은 행동에 대해 반발심을 표출하는 행위이다.
- ③ ㉢은 '뜨거운 여름 햇살'의 기억과 맞물려 흥분이 고조될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은 위험을 차단하면서도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의 역할을 한다.
- ⑤ ㉤은 강 저편의 아이들을 비유하면서 이후에 전개될 갈등을 암시한다.

2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963년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으로 한센병 환자의 일괄적 강제 격리 수용이 폐지되고, 감염의 위험이 없는 음성 한센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착촌 사업이 추진되었다. 『미개인』(1971)은 이 사업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음성 한센인 자녀와의 공학을 반대하는 집단 등교 거부 사태를 바탕으로 한다. 소설 속에서 과거에는 천대받았던 가난한 S동 주민들은 개발 열풍으로 갑자기 돈을 벌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인을 자처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한센인 배척은 무지와 편견보다는 한센병 관리 정책 자체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점을 작가는 지적하려고 한다. 국가 주도의 정착촌 사업이 한센인의 형식적인 사회 복귀만 추진할 뿐 실질적인 기반 조성이나 사회 분위기의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 국가는 도시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소설은 공동체의 행복과 질서를 명분 삼아 한센인을 몰아내려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시대상을 비판한다.

- ① 오수가 흐르는 강은 강제 격리 수용 환경의 열악함을 보여 주는군.
- ② 격리된 ‘나환자촌’의 소년들을 학교에 편입시키기 위해 정착촌 사업을 추진했겠군.
- ③ 우물가 사건은 등교 거부 사태로 번져나간 뒤 국가의 조정을 통해 화해로 마무리되었군.
- ④ 동리에 충만한 ‘이물감’의 바탕에는 문화인으로 수준이 높아졌다는 주민들의 자부심도 있었겠군.
- ⑤ 순경이 개를 사살해 버린 사건은 국가 주도의 도시 확장 과정이 졸속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히트펌프는 열을 저온의 열원에서 흡수하여 고온의 열원으로 옮기는 장치로서 냉난방에 활용한다. 히트펌프 중 증기압축식에서는 냉매가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를 차례로 지나며 순환한다. 냉매는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며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작동 유체이다. 증발기에서는 낮은 압력의 액체 냉매가 지열이나 공장의 폐열과 같은 저온 열원에서 열 Q_L 을 흡수해 기체가 되게 하며, 압축기는 기체 냉매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압축 일 W_C 를 가해 고온과 고압 상태로 만든다. 응축기는 고온·고압 냉매가 고온 열원에 열 Q_H 를 방출하며 액체로 전환되게 하고, 팽창밸브는 액체 냉매의 압력을 낮추어 다시 냉매가 증발기에서 낮은 온도 조건에서 증발하도록 하며 증발기로 들어온 냉매는 한 사이클을 마치게 된다. 히트펌프에는 냉매의 흐름을 역으로 바꿀 수 있는 역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냉매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난방 목적에서 쓰였던 응축기가 증발기로 작동하고 증발기는 응축기의 역할을 하여, 냉방에도 이용할 수 있다.

히트펌프의 성능은 성능계수(COP)로 나타낸다. 증기압축식 히트펌프의 한 사이클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히트펌프에서 나가는 에너지인 Q_H 는 들어오는 에너지인 Q_L 과 W_C 의 합과 같다. COP는 히트펌프에 투입한 에너지가 얼마나 큰 열 효과를 얻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COP는 고온 열원에 열을 방출하는 부분인 고온부의 성능계수(COP_H)와 저온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는 부분인 저온부의 성능계수(COP_C)가 함께 쓰인다. COP_H 와 COP_C 는 각각 Q_H 와 Q_L 을 W_C 로 나누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른 관계식을 W_C 로 나누면 COP_H 와 COP_C 는 서로 독립적으로 변할 수 없고 특정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기압축식 히트펌프 이외에 흡수식 히트펌프도 많이 쓰인다. 흡수식 히트펌프는 증발기, 응축기, 팽창밸브가 사용되며 이 부품들의 역할 또한 증기압축식 히트펌프와 같다. 다만 압축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냉매의 순환과정은 증기압축식 히트펌프와 유사하지만 증발기에서 나온 냉매가 압축기 대신에 사용되는 흡수기와 발생기를 거치는데 이러한 조작에 용액펌프가 쓰인다. 발생기에서 나온 냉매는 응축기로 들어가고 이후 냉매는 팽창밸브를 거쳐 증발기로 다시 들어가 한 사이클을 이룬다. 증기압축식에서는 기체 냉매를 압축하는데 비교적 큰 W_C 가 필요하지만, 흡수식에서는 냉매를 흡수제에 녹인 뒤 펌프로 그 용액을 발생기에 보내고, 발생기에서는 외부에서 화석 연료의 연소 등을 통해 공급되는 구동열 Q_G 로 냉매가 다시 분리되며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가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액체를 펌프로 순환하는 일은 기체를 압축하는 일보다 전기 에너지가 덜 소모되므로 흡수식 히트펌프는 증기압축식 히트펌프에 비해 전기료가 비싼 상황에서 유리하다.

흡수기에서는 증발기에서 저온 열원의 열 Q_L 을 흡수해 증발된 기체 냉매가 유입되어 흡수제 용액에 흡수된다. 흡수기는 기체 냉매를 받아들여 증발기 쪽의 낮은 압력을 유지하게 하고, 흡수 과정에서 열이 외부로 방출된다. 이후 냉매를 많이 포함한 용액은 용액펌프를 통해 발생기로 이동하고, 발생기에서는 공급된 Q_G 로 흡수제 용액을 가열하여 기체 냉매가 분리된다. 냉매가 빠져나간 흡수제 용액은 흡수기로 다시 돌아간다. 이러한 순환 과정에 용액펌프의 일 W_P 가

투입된다. 한편 발생기에서 분리된 기체 냉매는 응축기에서 고온부에 열을 방출하고 액체가 되며, 팽창밸브를 지나 증발기로 돌아간다.

이 방식에서 흡수기와 응축기 양쪽에서 열이 발생하며, 고온부 열 Q_H 는 흡수기 방출열과 응축기 방출열의 합으로 정의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Q_H = Q_L + Q_G + W_P$ 이다. 히트펌프를 작동 시키기 위해 투입한 에너지는 발생기 구동열과 용액펌프가 한 일이므로, COP_H 와 COP_C 는 각각 Q_H 와 Q_L 을 Q_G 와 W_P 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흡수식 히트펌프의 발생기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증기압축식 히트펌프와 마찬가지로, 흡수식 히트펌프는 전기 에너지의 사용이 필요하다.
- ③ 냉방에 사용할 때 히트펌프는 열을 고온 열원에서 저온 열원으로 옮기는 장치이다.
- ④ 팽창밸브는 증기압축식 히트펌프의 냉매 흐름의 방향을 역으로 바꾸는 데 필요하다.
- ⑤ 증기압축식 히트펌프를 난방에서 냉방으로 전환하면 액체 냉매가 기체 냉매로 전환되는 과정이 불필요해진다.

26.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증기압축식 히트펌프의 고온부 성능계수는 1보다 작을 수 없다.
 - ㄴ. 흡수식 히트펌프에서 저온부 성능계수가 커질수록 고온부 성능계수가 커진다.
 - ㄷ. 흡수식 히트펌프에서 용액펌프의 일이 작다면, 발생기에 구동열을 공급하지 않아도 냉매와 흡수제가 분리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서로 다른 방식의 히트펌프 A와 B를 이용하여 겨울철 실내 난방 실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A에서는 냉매가 폐열원에서 72 kJ의 열을 흡수하였다. 또한 기체 냉매를 압축하기 위해 외부에서 18 kJ의 에너지를 공급받았다. B에서는 기체 냉매가 용액에 흡수되며 70 kJ의 열이 방출되었다. 용액펌프에는 5 kJ의 에너지가 투입되었다. 발생기에서는 55 kJ의 구동열이 투입되어 냉매가 용액에서 분리되었고, 분리된 냉매는 50 kJ의 열을 방출하였다. (단, 두 히트펌프는 각각 증기압축식이나 흡수식 히트펌프 중 하나이며 이상적인 히트펌프의 구동이라 가정한다.)

- ① A가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은 90 kJ보다 크겠군.
- ② B에서 발생기에 공급된 구동열은 저온 폐열원에서 냉매가 흡수한 열보다 크겠군.
- ③ A는 흡수식 히트펌프이고 B는 증기압축식 히트펌프이겠군.
- ④ A와 B의 성능계수 중 고온부 성능계수는 B에 비해 A가 더 크겠군.
- ⑤ B는 A와 달리, 냉매가 순환할 때 팽창밸브를 통과하겠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에서 미래는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파국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인식된다. 오피츠와 텔만은 미래에 대한 이러한 인식 틀을 ‘비상사태 상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비상사태 상상은 일어날 확률과 관계없이 일단 발생할 경우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파국적 가능성의 영역을 다룬다. 동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재난을 압박한 문제로 묘사하여 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강제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심리적 차원을 넘어, 현재의 사회 질서를 재편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오피츠와 텔만은 지금까지 위험 담론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식별하고 지식화할 것인가에만 집중했다면, 오늘날에는 사건을 시간상에서 구성하는 방식, 즉 시간성 자체를 변형시키려는 시간의 정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만의 사회적 시간 이론은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법과 경제 같은 사회 체계는 각각 고유한 시간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 관념은 두 가지 차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첫 번째 차원은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한 미래이며, 두 번째 차원은 미래에 실제로 도래하게 될 현재를 의미한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도 두 시간의 차원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현대 사회는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 기술은 사회가 확률적으로 높은 특정 경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의 존재 역시 부정할 수 없게 한다. 이 확률 계산에서 비상사태 상상은 항상 다른 가능성 즉, 파국적 사건의 발생에 더 주목한다. 이와 함께 그 파국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게 함으로써 현재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경제 체계와 법체계에서 비상사태 상상이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미래 지향적 경제 체계의 시간성은 비상사태 상상과 긍정적으로 공명한다. 루만에 따르면 고전적 의미의 금전 화폐는 과거의 이력을 묻지 않으며, 오직 미래의 잠재적 사용 가능성을 다룸으로써 현재를 과거로부터 단절시킨다. 경제 체계의 이러한 미래지향성은 ㉠ 파생 상품 시장에서 극대화된다. 파생상품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계약으로 고정하는 동시에, 그 시점까지의 현재를 극도로 유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변동성 자체를 수익 창출의 원천으로 삼는다. 경제 체계에서 재난이나 파산 같은 비상사태의 도래 가능성은 체계의 중단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이자 체계 작동의 동력이 된다. 경제는 파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국을 선취함으로써 자신의 시간성을 강화한다.

반면, 법체계의 시간성은 비상사태 상상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법체계는 규범에 대한 기대를 과거에 고정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한다. 법체계는 ‘만약 X라면, Y이다’라는 조건 프로그램 형식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규범에 따라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 그러므로 법적 소통은 주로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을 시작점으로 삼는다. 또한, 적법 절차 원칙은 법적 판단을 하기 전에 밟아야 할 필수적 과정과 그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체계는 자기 자신을 시간에 구속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비상사태 상상의 논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법이 개입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 예방적 구급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제도는 테러를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구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근거로 현재의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과거로 흐르는 법체계의 시간성을 역전시킨다. 한편, 압박한 파국 앞에서 절차적 지연은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우려되는 해악의 심각성과 시간적 긴박성이 강조될수록 인간의 존엄 같은 절대적 가치조차 유예되고 미래에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 자명하게 여겼던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위기 담론에 잠식된다.

28. 밑줄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사태 상상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절차의 지연은 줄어들 것이다.
- ② 법체계는 사회 안정화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규범을 기준으로 삼는다.
- ③ 경제 체계의 시간성에 따르면 화폐의 구매력은 거래 기록을 통해 보증된다.
- ④ 비상사태 상상은 확률 계산을 통해 현재를 결정이 압박한 시간으로 전환한다.
- ⑤ 과거의 위험 담론은 위험을 객관적 지식의 형태로 축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29. ㉠과 ㉡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확정적이나 그 발생 양태는 여전히 불확정적이다.
- ② ㉠과 ㉡은 경제 체계와 법체계에서 원래의 시간성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 ③ ㉠에서 불안정성은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에서는 신속한 결정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이용된다.
- ④ ㉠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거래할 수 있지만, ㉡은 법의 기본 원칙을 통해 미래 위험에 대응한다.
- ⑤ ㉠은 계약을 통해 사건 발생 기준점을 과거에 고정하며, 위험이 강조될수록 ㉡을 도입·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 국방부는 적성국인 B국이 18개월 이내에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완성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B국의 구체적인 도발 징후는 아직 없었다. A국 안보·법률 자문단은 B국의 생화학 무기 개발 성공 가능성이 5% 이하에 불과하다는 위험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예방적 전쟁 개시의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A국 대통령은 ‘기다림은 곧 공멸’이라며 B국 연구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미사일 폭격을 감행했다. 이후, A국과 B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자 A국 금융 시장에는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대규모 재난에 따른 기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채권이 인기를 끌었다. 이에 A국 의회는 이와 같은 상품이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사회적 금융 상품을 불법화하고, 그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거래를 일괄 무효화하는 <금융 거래 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① A국의 대통령과 기업 모두 파국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 ② A국의 특별법은 법체계의 과거 지향적 성격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 ③ A국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제 체계의 시간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
- ④ A국 자문단의 위험 분석은 미래에 실제로 도래하게 될 현재라는 시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⑤ A국 대통령이 B국의 무기 개발 성공 가능성이 50%로 증가한 후 선제 타격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의 시간성이 역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